



2017년 성탄메시지

“영원한 천주성의 찬란한 광명,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오시네, 병들어 신음하는 만민 고치려, 구원의 문 되시려 찾아오시네. 천사들 합창소리 땅을 흔들고, 천상의 노랫소리 새 세상 알려,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 평화기쁨 전해주시네.” (성무일도서의 성탄대축일 독서기도 찬미가에서)

I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구민 여러분, “오늘 구세주께서 탄생하셨으니 기뻐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소멸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 기쁨을 부여하시는 생명께서 탄생하신 이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기쁨의 참여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으며 기뻐할 이유는 모두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성 대 레오 교황님의 강론을 인용하면서, 구세주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 대 레오 교황님께서 “기뻐할 이유는 모두가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 때문에 느끼는 그런 기쁨을 초월하는 우리 구세주 탄생이 가져온 우리 공통의 ‘지극히 좋은 일’ 때문입니다. 그 ‘지극히 좋은 일’은, 바로 하느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좋은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목이

두려워 밤에 당신을 찾아온 의회의원 니코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4-16)

우리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탄의 중심이 되는 의미이며, 이 축복이 바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알기 쉽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앞의 인용문처럼 “외아들을 내주시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에 보내시다.’ 혹은 ‘태어나게 하시다.’는 뜻만이 아니고,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를 이 멸망의 불행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아들을 수난과 죽음에 처할 수도 있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을 내주시어”라는 말씀 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면에 계속>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제 1 독 시 이사 9,1-6
- 회 답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 2 독 시 티토 2,11-14
- 복음 판 호 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복 음 루카 2,1-14
- 영 성 제 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2017년 성탄메시지> (계속)

II

참된 사랑은 몇 가지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사랑은 무엇보다 사랑받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는 데에서 이 사랑의 좋은 모범이 드러나지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가 바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드님까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그리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또한 상대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외아들이 고통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되게 낮추시었고, 그래서 번쩍이는 광채와 천둥 번개 속에 내려보내시지 않고, 한 인간 여인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어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낮춤’의 정도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낮춤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탄생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탄생 소식을 세상의 왕이나 총독 같은 권력자에게 먼저 알리시지 않으시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달프게 살아간, 한밤에 양 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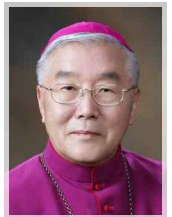
참된 사랑은 또한 상대방을 풍요롭게 하고자 자신은 오히려 가난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성 바오로께서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 외아드님이 여관방 하나 찾지 못하고 가축이 먹고 자는 외양간의

구유 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들 탄생에서 어떤 특전도 찾지 않으셨기에 이 비참한 환경에서 외아들이 탄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셨던 풀턴 톰 대주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 하여금 땅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게 하시는 분께서, 어느 날 소와 당나귀의 입김을 필요로 하게 되실 줄을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은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인 미움을 뒤로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포용과 용서를 통해 우리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 당신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구민 여러분, 하느님의 이 참된 사랑과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 성탄 대축일을 맞으면서 크나큰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스러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외아들을 극단의 겸손과 가난 속에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의 이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랑을 본받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요한 4,9-10)라고 외치듯 말씀하시는 사도 성 요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

2017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천주교 군중교구장
유수일 F.하비에르 주교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메시지

- 제 1 독 시** 이사 52,7-10
- 회 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 2 독 시** 히브 1,1-6
-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복 음** 요한 1,1-18<또는 1,1-5.9-14>
-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